광남일보
2012년 07월 04일 (수)
02면 사설/칼럼

F1조직위-iMBC, 홍보마케팅 손잡아

케이블방송·인터넷 홍보…입장권 판매 활성화

F1대회조직위원회와 주식회사 아이엠비씨(iMBC)는 3일 2012 F1 한국대회(코리아 그랑프리)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마케팅 공동 업무 추진협약을 체결(사진), 입장권 판매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은 대회 3년차를 맞아 F1대회가 국민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 여가문화로 저변을 확대하고 모터스포츠를 활용한 관광산업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iMBC 대회가 끝날 때까지 홈페이지에 F1 막대광고(배너)를 게재해주고 지상파 및 케이블 채널과 인터넷 방송 등에 F1 소식을 전달한다.

이를 통해 연간 수십억원의 F1대회 홍보효과가 기대되며 케이팝(K-POP) 후원기업 확보, 입장권 판매 증간 판매상(딜러) 참여 등 마케팅에도 많은 도움이 예상된다.

서이남 조직위 공보팀장은 "iMBC는 회원 수가 2000만명 이상이고 하루 방문객 수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인터넷 매체인데다 방문객들도 20~30대 젊은 층으로 구성돼 있어 F1 홍보마케팅에 상당한 경쟁력과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며 "올해 F1대회는 자동차와 스피드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K-POP 콘서트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리는 한국대회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영암 F1 경주장에서 열리고 입장권은 옥션이나 공식 홈페이지(www.koreangp.kr)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이폰 구별 없이 어플 스토어에서 'F1코리아'를 검색하거나 공식 누리집 또는 F1홍보물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내려받으면 실시간으로 F1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F1조직위는 이날 공석인 범도민지원협의회 의장에 김호남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부의장 5명을 위촉했다.

김호남 의장 임기는 2014년 3월 23일까지다.

홍성창 기자 hong@

15.1 X 9.9 cm

南道日報
2012년 07월 04일 (수)
12면 스포츠

F1조직위-iMBC, 대회 홍보마케팅 '시동'

케이블방송 · 인터넷 통해…입장권 판매 활성화 기대

F1대회조직위원회와 주식회사 아이엠비씨(iMBC)는 3일 2012 F1 한국대회(코리아 그랑프리)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 · 마케팅 공동 업무 추진협약을 체결(사진), 입장권 판매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은 대회 3년차를 맞아 F1대회가 국민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 여가문화로 저변을 확대하고 모터스포츠를 활용한 관광산업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iMBC 대회가 끝날 때까지 누리집(홈페이지)에 F1 막대광고(배너)를 게재해주고 지상파 및 케이블 채널과 인터넷 방송 등에 F1 소식을 전달한다. 이를 통해 연간 수십억원의 F1대회 홍보효과가 기대되며 케이팝(K-POP) 후원기업 확보, 입장권 판매 증간 판매상(딜러) 참여 등 마케팅에도 많은 도움이 예상된다.

서이남 조직위 공보팀장은 "iMBC는 회원 수가 2천만명 이상이고 하루 방문객 수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인터넷 매체인데다 방문객들도 20~30대 젊은 층으로 구성돼 있어 F1 홍보마케팅에 상당한 경쟁력과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며 "올해 F1대회는 자동차와 스피드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대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K-POP 콘서트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리는 한국대회는 오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영암 F1 경주장에서 열리고 입장권은 옥션이나 공식 누리집(www.koreangp.kr)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이폰 구별 없이 어플 스토어에서 'F1코리아'를 검색하거나 공식 누리집 또는 F1 홍보물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내려받으면 실시간으로 F1 관련 다양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오치남 기자 ocn@namdonews.com

26.1 X 8.1 cm

南道日報
2012년 07월 04일 (수)
14면 인물

김호남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F1대회 범도민지원협의회의장에 위촉

F1대회조직위원회는 3일 공석인 범도민지원협의회 의장에 김호남<63 · 사진>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부의장 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F1대회 범도민지원협의회 의장으로 성공적 F1대회 지원에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주영순 의장이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김호남 의장이 제2기 의장직을 맡게 됐다. 임기는 2014년 3월 23일까지다.

목포 출신으로 문태고와 목포해양대 산업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현재 근화건설(주) 대표이사, 목포중앙고등학교 이사장, 한중문화협회 전국지회 협의회 회장, 전남 시 · 군전문의용 소방대 협의회장 등을 맡고 있다.

김 의장은 "전남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전남의 멋과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F1대회 3년차를 맞아 현장 중심의 '친절 · 질서 · 청결운동' 등 범도민실천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 F1 한국대회 성공 개최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범도민지원협의회는 22개 시 · 군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숙박 · 음식협회, 체육회 등 각계각층의 지역 인사 376명으로 구성, F1대회 붐 조성과 운영 지원 및 국내외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한편, 범도민지원협의회는 100여일이 채 남지 않은 F1대회 성공을 염원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오는 11일 오후 3시 범도민결의대회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오치남 기자 ocn@namdonews.com

15.5 X 13.1 cm

光州日報
2012년 07월 04일 (수)
02면 종합

F1 수익구조 개선 관련법 개정 재추진

F1 조직위는 3일 "대회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F1대회지원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F1대회지원법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은 지난해 개정이 추진됐으나 18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다가 이번에 다시 개정 작업을 벌인다.

F1대회지원법의 경우 F1조직위를 수익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F1대회도 옥외광고물 수익금 배분대상에 포함해 기금조성의 재원을 다양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F1대회지원법과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옥외광고 수익금으로 매년 10억원 안팎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F1조직위는 내다봤다.

지난해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F1대회 관련 조세특례제한법도 시행령 개정도 필요하다. F1 조직위를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 수익사업의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부가세 면제시 매년 20억~3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F1 대회의 경기운영과 대회 관련 시설을 위해 외국에서 제작, 수입하는 특수전자설비 등의 품목은 면세하는 조항을 담고 있으며 경기운영과 대회 관련 시설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경감 조항도 포함했다.

F1조직위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시행령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고 10월까지, F1대회지원법은 의원발의를 통해 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상정해 10월까지 개정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10.3 X 11.0 cm

광주매일신문
2012년 07월 04일 (수)
18면 인물

F1 범도민지원協 의장에 김호남 목포상의 회장

F1조직위는 공석인 범도민지원협의회 의장에 김호남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부의장 5명을 위촉했다.

그동안 F1대회 범도민지원협의회 의장으로서 성공적 F1대회 지원에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주영순 의장이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김호남 의장이 제2기 의장직을 맡게 된 것이다. 임기는 2014년 3월 23일까지다.

범도민 지원협의회는 22개 시·군의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숙박·음식협회, 체육회 등 각계각층의 지역 인사 376명으로 구성됐으며, F1대회 붐 조성과 운영 지원 및 국내외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신임 김 의장은 "전남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전남의 멋과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F1대회 3년차를 맞아 현장 중심의 '친절·질서·청결운동' 등 범도민실천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 F1 한국대회 성공 개최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범도민지원협의회는 100여일이 채 남지 않은 F1대회 성공을 염원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오는 11일 오후 3시 범도민결의대회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정성문 기자 moon@kjdaily.com

10.1 X 10.4 cm

전남매일
2012년 07월 04일 (수)
02면 종합

F1 수익구조개선 법 개정 재추진

지원법 시행령·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

지난해 국회 처리가 불발됐던 F1대회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작업이 재추진된다.

3일 F1대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고비용 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올해 F1대회지원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F1대회지원법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은 지난해 개정이 추진됐으나 18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다가 이번에 다시 개정 작업을 벌인다.

F1대회지원법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은 지난해 개정이 추진됐으나 18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다가 이번에 다시 개정 작업을 벌인다.

F1대회지원법의 경우 F1조직위를 수익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F1대회도 옥외광고물 수익금 배분대상에 포함해 기금조성의 재원을 다양화시키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F1대회지원법과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옥외광고 수익금으로 매년 10억원 안팎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F1조직위는 내다봤다.

지난해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F1대회 관련 조세특례제한법도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법령 개정에는 F1 대회의 경기운영과 대회 관련 시설을 위해 외국에서 제작, 수입하는 특수전자설비 등의 품목은 면세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 F1조직위가 작성하는 서류 인지세와 F1 조직위가 번 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비과세했으며 경기운영과 대회 관련 시설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경감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F1조직위를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해야 수익사업의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부가세 면제시 매년 20억~3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F1조직위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시행령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고 10월까지, F1대회지원법은 의원발의를 통해 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상정해 10월까지 개정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근산 기자

15.3 X 10.5 cm

南道日報
2012년 07월 04일 (수)
02면 종합

F1대회 수익구조개선 관련법 개정 추진

관계사업 부가세 면제 골자…10월 전 마무리

'고비용 적자 운영'에 허덕이고 있는 F1코리아 그랑프리가 관계 법령 개정으로 수익구조 개선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F1대회조직위원회는 "올해 F1대회지원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조직위는 관리법 시행령 가운데 F1대회지원법의 경우 F1조직위를 수익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F1대회도 옥외광고물 수익금 배분대상에 포함해 기금조성의 재원을 다양화시키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F1지원법과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옥외광고 수익금으로 매년 10억원 안팎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F1조직위는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F1대회 관련 조세특례제한법도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법령 개정에는 F1 대회의 경기운영과 대회 관련 시설을 위해 외국에서 제작, 수입하는 특수전자설비 등의 품목은 면세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 F1조직위가 작성하는 서류 인지세와 F1 조직위가 번 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비과세했으며 경기운영과 대회 관련 시설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경감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률의 시행령을 개정해 F1조직위를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해야 수익사업의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부가세 면제시 매년 20억~3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F1조직위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시행령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고 10월까지, F1대회지원법은 의원발의를 통해 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상정해 10월까지 개정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F1대회지원법과 연계해 시행령을 오는 11월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F1조직위원회 관계자는 "기본적인 비용 절감차원에서 관계 법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영민 기자 kym711@namdonews.com

15.5 X 10.4 cm

광남일보
2012년 07월 04일 (수)
18면 인물

F1 범도민지원協 김호남 신임의장 위촉

"친절 등 범도민 실천운동 추진… 성공 개최 최선"

F1대회조직위원회는 3일 현재 공석중인 범도민지원협의회 의장에 김호남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촉됐다.

그동안 F1대회 범도민지원협협의회 의장으로서 활동해온 주영순 전 의장이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으로 사의를 표명해 김호남 의장이 범도민지원협의회 제 2기 의장직을 맡게 됐다.

신임 김호남 의장은 "전남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전남의 멋과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F1대회 3년차를 맞아하여 현장 중심의 '친절·질서·청결운동' 등 범도민실천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오는 10월 12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F1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범도민 지원협의회는 22개 시군의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숙박·음식협회, 체육회 등 각계각층의 지역 인사 376명으로 구성되어 F1대회 붐 조성과 운영 지원 및 국내외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범도민지원협의회는 오는 11일 오후 3시 범도민결의대회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최현수 기자 chs2020@

15.2 X 8.4 cm

광남일보
2012년 07월 04일 (수)
05면 경제

광양컨화물 상반기 물동량 소폭 증가

106만 TEU 처리…작년 동기比 0.1% 증가

광양항에서 올 상반기에 처리된 컨테이너화물은 106만3116TEU로 지난해 동기 106만2146TEU에 비해 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수입화물은 44만9628TEU로 지난해 동기 43만5764TEU에 비해 3.3%, 수출화물은 45만1333TEU로 지난해 동기 43만4964TEU에 비해 3.8%가 증가했으나, 환적(T/S)화물은 15만2888TEU로 지난해 동기 17만6024TEU보다 13.1%나 감소했다.

또 연안운송도 8967TEU로 지난해 동기 1만5394TEU로 무려 41.8%나 줄었다.

이같이 컨테이너화물이 지난해 동기에 비해 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것은 유럽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환적화물도 부산항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동부권본부/광양·김귀진 기자

15.1 X 5.2 cm

全南日報

2012년 07월 04일 (수)
16면 스포츠

영암 브레이크는 없다

지난해 F1 코리아그랑프리에서 영암서킷을 달리고 있는 머신. 전남일보 자료사진

10월 12~14일 개최… "완벽 준비" 닦고 조이고 기름칠 티켓구매율 작년보다 쑥쑥… 중앙정부 지원 최대관건

세계 최고의 모터스포츠 레전드 2012 F1대회의 코리아그랑프리 개막이 4일 D-100일을 맞았다.

올해 열리는 대회는 전남도가 F1 유치사인 포뮬러원테크니컬리미티드(FOM)와 개최일을 정해 TV중계권료와 개최권료 완전세탁 번복해 최종 합의되면서 4년간 2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전남도, 영암군, 포뮬러원 등 4총주이어, 경일권(G20 경기 관람) 최고기는 하반기, 최저기는 3만원, 주력 티켓 가격대는 12만원선으로 결정했다. 원소년은 1만~2만원대로 F1대회를 즐길 수 있다.

■고품~속력 대해 '적격'

조직위는 대회 첫날인 10월13일 첫연습, 퀄레날 첫연습 면, 결승전이 열리는 14일에는 9만여 명의 경주장을 찾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보대표 및 독보~광양 고속도로 개통 등 인접도선을 추가 개설하고 F1모시셀파(3면) · 모시셀운가(3면) 운행 등 광역 교통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고속~시외버스 등 노선버스도 관련하거나 경주장까지 연장 운행할 방침이다. 경주장 주변 또 환승주차장 3개소(1만5000면)를 운영하고 셔틀버스 685대(3일) 등 수송체계 운행할 계획이다.

속력의 경우 1일 최대 속력인 9만3604명(대회 관계자 336038명, 관람객 4만5840명)으로 2만5654명의 개실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경주~전남권 이동가능 예상이 4만1604명에 달해 필요 객실의 14배가 이어 확보됐다.

■중앙정부 지원이 관건

두번째 대회를 치러보지 각종 문제점 등이 해결돼가 해외에 광해의 경우 대회 시제에는 뱃대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다.

그러나 국내·외 경기가 함께하고 있고, 대수제제력한해 등 속제했시가 인하여 일러면서 비면 관계가 까로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F1대회 흥행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전년을들의, 대신 등 이슈도 발표 달감시 않은 이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두번째에 가까울 것으로 "부담" 을 지고 있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최대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도가 F1 경주장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1조6000원의 FIFW채권 논란 끝에 지난 수 방식으로 해단키로 한 대크, 조직위가 FOM과 계정금을 통해 연간 200억원 가량의 수지개선 효과를 일컫으나 이전의 600억원대 적자 구조는 문제점이 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린 2012 F1대회 유럽전드에서 우승자인 페르난도 알론소(왼편)가 팬들소 힘찬 라이크 연과 키쉬한 장면을 펼치고 있다.
LAT Photoesch · 전남도 제공

박동은 F1코리아그랑프리조직위 사무총장은 "고품~속력 이슈의 필요보기에 불이 관련해들이 뛸런 계획하고 관련하게 경기를 즐길 수 있게 됐다"며 "대회 기간 K-POP 공연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병행해 풍성한 볼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하이한 스케드,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용환 기자 leeyo@kbc.com

알론소 선두 질주… 웨버 바짝 추격

F1 2012 라운드마다 대혼전

올해 F1은 지난해 챔피언 세바스찬 베텔의 독주가 할 것이란 예상을 뒤엎고 혼전의 연속이다.

시즌 7라운드까지 매 그랑프리마다 우승자가 바뀌면서 최종 승자를 점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8라운드 스페인 대회를 마친 F1은 현재 페르난도 알론소(페라리)가 종합 순위 1위를 지키고 있다. 알론소는 이날 스페인 발렌시아 경주장에서 열린 2012 F1 8라운드 유럽대회에서 1시간34분16초8대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알론소는 1그랑프리에서 클랩하며 이어진 페르노가 세상했지만 세바스 클랩하지 낙승을 거둘 것으로 보였던 베텔을 제치고 자신의 고국인 스페인에서 라인한에 우승을 차지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어 세바스찬(레드스)이 안정적인 주행을 보이며 2위를 차지했고 결말는 놓는 9e에 빠졌던 루이하(메르세데스)가 맨 앞의 여신에게 도움을 받으면 F1 복귀 후 처음으로 포디움(F1드라이버 3명 가운데 1~3위 선수가 시상대에 서는 것)에 오르는 감격을 누렸다.

이 경기에서도 이변이 속출했다. 예선 1위를 차지했던 세바스찬 베텔(레드불)이 머신 결주하는 고장으로 결도 하차(리타이어)한데다 선두권 경쟁을 벌이던 보쉬 그로장(로터스)마저 리타이어해서 경주를 끝난했다. 베텔과 그로장이 리타이어는 모두 브는가 고급하는 밸런기 부품 문제로 일어났다. 레일빌(맥라렌)도 엔이에 급감하다 라이코넨(로터스)에게 추월을 허용했고 타이코넨 또한 해결한 뒤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알론소를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알론소는 이 대회 우승으로 총 111점을 기록, 종합 순위 1위로 올라섰다. 2위는 퀄레날 이스 웨버(레드불)로, 이 대회에서 랭스퍼레로 한수를 확자하지 보면 세일은 대회를 앞섰었다. 4위는 이번 그랑으로 레드 하지면 베텔(86점)이다.

한편 2012년 8라운드인 영국 그랑프리 공식 세션은 오는 6일 오후 6시이이라 한국 시간기준 시작하고, 퀄리파잉과 레이스는 각각 7일 오후 9시와 8일 오후 9시에 펼쳐진다.

이용환 기자 leeyo@kbc.com

2012 챔피언십 순위 및 포인트

왼쪽부터 알론소, 웨버, 베텔순

(95.4 X 33.3 cm)